

“번뇌 멈춰~” MZ들 절에서 극락 텐션 ‘힙’해진 불교... ‘핫’해진 템플



템플스테이

하루 계획표

최근 20~30대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뉴진 스님’의 부처님오신날 디제잉 퍼포먼스와 70:1의 경쟁률을 자랑한 낙산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처럼 파격적인 행보가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텍스트힙’ 열풍 속에서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2030 세대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불교의 새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화계사로 템플스테이를 떠나 보았다.

◇13:50

방 배정을 마치고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뒤 템플스테이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안내를 받았다. 배정받은 방은 세 명이 쓰기에 충분히 넓었으며,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편안했다. 예상보다 쾌적한 숙소 컨디션에 감탄하며, 사찰을 둘러본 후 저녁 공양 시간까지 자유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 사찰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자연의 상쾌한 풀 내음에 템플스테이의 묘미를 한껏 만끽했다.

불교, 희소성 추구 세대에 힙한 종교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
학업·취업 경쟁 잊고 마음 디톡스
합리적인 가격에 식사·숙박도 가성비

◇16:00

저녁 공양 시간. 육식 없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담아 조용히 식사하는 전통에 따라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롯이 음식에 집중해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천천히 식사하니 음식의 맛이 한층 깊게 느껴졌다. 식당 벽에 붙어 있던 ‘음식을 남기면 가난이 찾아온다’는 문구가 문득 마음에 와닿았다.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 작은 반성도 했다.

◇17:40

타종 체험에 참여했다. 눈앞에 선 범종은 상상보다 크고 웅장했으며, 종을 울릴 때마다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마음에 강렬하게 스며들었다. 직접 타종하며 불교적 차분함과 엄숙함을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18:20

108배와 108염주 만들기. 절하는 법을 배우고,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염주 한 알을 꿰며 수행을 이어갔다. 스님께서는 육식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처음에는 108배를 꼭 완수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지만, 스님의 조언을 되새기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절을 올렸다. 절제와 안내, 마음의 평온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09:00

다음 날 아침, 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다도 예절을 배우며, 스님이 직접 따온 유기농 깻잎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자연의 소박함과 선의 가르침을 느꼈다. 스님께서는 참여자들에게 최근의 고민을 물어보고, 잔잔하면서도 깊은 조언을 해주셨다. 특히 “생각과 느낌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이며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2030 세대가 불교에 매료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템플스테이의 인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렴한 비용(화계사 기준 1박 2일 7만 원)으로 자연 속에서 도심의 번잡함을 잠시 잊고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체험과 두 번의 식사, 숙박이 모두 포함되어 대학생과 같은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또한, 불교 교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매력도 큰 역할을 한다. 템플스테이에서 느낀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내면에 집중하고 스스로 수양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종교다. 과도한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불교의 교리가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가 ‘힙함’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요소라는 점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희소성을 ‘힙’으로 여긴다. 내 주변을 봐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불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불교는 상대적으로 더 ‘힙한’ 종교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번 경험은 불교와 템플스테이가 젊은 세대에게 단순한 종교적 경험을 넘어,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매력적인 여정으로 느껴지게 하는 이유를 체감하게 했다.

/글·사진=김다예 대학생 기자

/정리=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